



慶 지령 200호 발간 축하 祝

[지령 200호 발간 기념사]



존경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

태풍과 장마에 이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인 여러분께서 애독하시는 능성구씨종보가 지난 1976년 1월 15일 창간 이래 3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지령 2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능성구씨종보가 지령 200호를 발행하기까지는 종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내외 종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종보가 창간될 당시는 대종회가 월세방으로 지낼 때인 만큼 창간호의 발행은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1976년 종보 창간을 전후해서 대종회 사무실의 전·월세금을 지불할 돈조차 없는 실정이라 궁여지책으로 원효로에 있는 자형(滋亨) 종인 자택으로 사무용 보따리를 옮기고 그 와중에서 능성구씨의 홍보지요 교양지인 능성구씨종보가 창간되어 막혔던 언로가 트이고 우리 모두에게 총화단결하고 승조애중하며 종력을 배양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창간 초기에는 덕조(惠祖) 수석부회장, 성회(聖會)·용회(庸會)·자창(滋昌) 부

회장, 언회(言會) 총무이사, 현서(賢書) 편집인 등 대종회의 임원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기희생정신으로 종보 제작에 헌신해 왔습니다. 전국에 260여 개의 성씨 중에 종보를 발행하는 성씨는 불과 50여 성씨뿐입니다. 그중에 우리 종보가 7번째로 창간을 하여 성씨 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종보는 보학을 통한 선조님들의 얼과 사적을 배우게 하고 후손들의 전도(前導)를 지도하는 지침이 되었고, 경향 각지의 종회와 종인간 연락처의 매개체로서 종인간의 화합과 종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기에 종인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종보가 되고 구문(具門)의 아름다운 등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선조님들의 사적을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알리고 종중 소식의 다변화와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지로서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구문의 길잡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보가 지령 300호, 500호, 1,000호 이상으로 영구히 계속 발행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종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종보를 구독하지 않는 종인이 많습니다. 시도종회, 파종회, 소종중에서는 많은 종인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능성구씨종보의 지령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대종회장 具判龍(滋)



동 정

LG 글로벌챌린저 발대식



구본무(具本茂) LG 그룹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LG 글로벌챌린저 발대식에

참석해 “원대한 꿈을 품고 치열하게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LG 글로벌챌린저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이다. 구 회장은 “LG 글로벌챌린저는 그동안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2000여 명의 젊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며 “이번 선발 인원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무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젊은 여러분에게는 시대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움을 만들어 낼 힘이 있다”며 “원대한 꿈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치열하면서도 즐겁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대구향교 전교 취임



구자영(具滋英) 대종회 이사 겸 대구경북 종회장이 지난 7월 1일 대구향교(大邱鄕校) 전교(典校)에 취임했다.

이날 대구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취임식에는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교육감, 시의회의장 등 내빈과 함께 유림단체, 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자영 전교는 취임사에서 선배 유림들께서 이룩해놓은 큰 업적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아간다고 각오를 다짐하면서 화합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 유교(儒敎)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각종 의례(儀禮)를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고 전통유교문화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취임



구본용(具本勇)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지난 6월 11일 제7대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에 임명되어 6월 21일 취임식을 가졌다.

구 신임 원장은 한양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구 원장은 도원수과 총렬공계 별좌공(別坐公) 후손으로 서울시종회 자항(滋恒) 고문의 장남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서울 신당동 소재)’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 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다.

수험지침서 펴낸 ‘공신’



구본석(具本錫) 해병(이병)이 지난 6월 ‘공부는 내게 희망의 끈이었다’는 수험 지침서를 펴냈다. 대학시절 공부의 신으로 불렸던 본석 이병은 2009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서울대 인문계열 자체 수험시험과 한문시험에서 1등을 하는 등 우수한 학업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재학 중 학습 멘토링 사이트 ‘공신닷컴’ 회원으로 활동하며 쓴 공부 방법에 관한 글이 수험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공부의 신을 뜻하는 ‘공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학년을 마치고 지난 2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백령도에 배치된 구 이병은 좌정승파 후손으로 지난해 대종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조성묘순례에 참석한 바 있다.

대학생 선조성묘순례 행사 장학증서 수여 충남도종회임원 학생들 격려



대중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당진을 거쳐 고창 능주의 순으로 선조님들의 묘역을 참배하였으며 능주 시조단소에서 성묘를 끝낸 후 장학증서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1인당 100만원)를 수여하였다. 이번 순례행사에는 대중회에서 자선(滋璿) 상임부회장과 옥현(玉鉉, 滋) 이사, 교원

(教原) 총무, 태회(泰會) 서울시종회 이사, 학부모인 자승(滋承) 종인과 광회(光會) 홍보편집인이 동행하였고 학생들은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 중 17명은 선조성묘순례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장마철인데다가 출발시점부터 많은 비가 내려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당진에 도착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고창으로 가는 도중에도 많은 비가 내렸으나 고창 3세조 묘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에도 전날 밤부터 내린 비가 세차게 내렸으나 능주에 도착하니 비가 오지 않은데다가 시원한 바람까지 불었다. 신기로운 정도로 성묘할 때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햇볕도 가려준 물론이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주어 편하게 성묘를 마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입에서 선조님들이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말이 나왔다.

각 묘소에서는 자선(滋璿) 대중회 상임부회장의 묘소에 대한 보학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참배를 드릴 때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훌기 낭독과 헌관·축관·집사 등을 직접 맡아서 참배의례를 체험함으로써 조상을 정성껏 모실 줄 아는 숭조정신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체험과 뿌듯함을 느끼는 값진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순례행사에서 당진 신암사에서 일운 스님이 시원한 과일과 떡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의 MT장소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는 충남도종회의 완회(完會) 회장과 문웅(文雄, 會), 영회(永會) 이사가 바쁜 와중에 직접 나와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으며 학생들에게 머드로 만든 비누를 선물하였고 저녁식사로 맛있고 푸짐한 매운탕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대학생회 자체적으로 MT를 갖고 바다의 풍경을 즐기며 서로 간에 많은 대화로 즐거움을 나누면서 대학생회의 발전을 위한 단합대회를 가져 돈독한 친목을 다짐하였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선조순례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남		여	
교진(教鎭)	고려대 4년	나현(娜鉉, 謨)	부경대 3년
본엽(本燁)	인하대 3년	민서(珉緒, 教)	건국대 2년
본진(本陣)	연세대 4년	민아(珉娥, 本)	중앙대 4년
본헌(本憲)	한양대 2년	새해(새해, 謨)	경희대 3년
세현(世鉉, 本)	아주대 3년	수경(秀暻, 謨)	전남대 3년
윤태(潤兌, 滋)	중앙대 2년	의선(意善, 會)	중앙대 2년
자림(滋林)	청주대 3년	자은(滋恩)	충남대 4년
자영(滋映)	고려대 2년	초록(紹綠, 會)	전북대 3년
지현(志憲, 謨)	서울대 1년	혜민(慧珉, 謨)	경북대 3년
충선(忠宣, 本)	연세대 4년		

◆ 보학교실 선조(先祖)사적(事跡) 38



[11세(世) 제선조(諸先祖) 탐구(探究) IV]

11세(世) 휘(諱) 신경(信璟)

상임부회장 구 자 선(具滋璿)

신경(信璟)공은 도원수공파(都元帥公派)로 10세(世)이신 능천군(綾川君) 휘(諱) 수영(壽永)공의 다섯째 아드님으로 자(字)는 정수(正叟)이시며 호(號)는 백산(白山)이시다. 역대보(歷代譜)에 공(公)의 생졸연기(生卒年紀)가 누락(漏落)되었으나, 인재(忍齋) 홍섬(洪暹)공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에는 1494년(成宗 25) 5월에 출생하시고 1562년(明宗 17) 4월 9일에 졸(卒)하셨다고 명기(明記)되어 있고,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공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에는 향년(享年) 69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호(雅號)도 백산(白山)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의 생졸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은 부마(駙馬-중종의 사위)인 능창위(綾昌尉) 휘(諱) 한(澣)의 부(父)로서 처음에는 와서별제(瓦署別提)에 임명되고 1538년(中宗 33)에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와 1540년에 장원(掌苑-掌苑署)에 소속된 正六品職)에 승진(昇進)되시고 1541년에 장흥고령(長興庫令)과 1542년에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와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을 거쳐 1545년에 첨정(僉正) 위사원종공신(衛社原從功臣)에 첨록(添錄)되고 내자시첨정(內資寺僉正)과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 등을 역임하시고 1548년(明宗 3)에 가평군수(加平郡守) 1554년에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 등을 지내시고 동년 6월에 춘천도호부사(春川都護府使)로 부임하셨다가 사도첨정(司導僉正)과 풍저창수(豐儲倉守) 상례(相禮) 등을 역임하시고 1561년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에 임명되었다. 공이 춘천도호부사로 계실 때 소양강(昭陽江)에 제방(堤防)을 하고 우두평(牛頭坪)을 개간(開墾)해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니 다른 곳으로 부임할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만류하므로 특명으로 2년을 유임하셨으며 공이 귀거래사(歸去來辭-중국 진나라의 도연명이 관직을 사퇴하고 귀향하여 전원생활의 자연미를 읊은 글)를 읊고 벼슬을 버리고 귀가코자 함에 백성들은 관청 앞에 엎드려 작별을 아쉬워했다. 만년에 팔곡산(八谷山) 선영(先塋-綾川君) 곁에 여막(廬幕-무덤 가까이

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가)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를 살며 묘역(墓域) 십리(十里) 내에 손수 식목을 하고 위토(位土)를 장만하고 재실(齋室)을 지어 효성을 다하였다. 또 산 어귀에 제방을 만들어 물을 저수하고 전담에 수리시설(水利施設)을 하여 형제 숙질들에게 전답을 고루 분배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기에 당신의 곳간에는 남은 재물이 없었다. 자부(子婦)인 숙정옹주(淑靜翁主)가 상(賞)으로 하사 받은 물건을 모두 종족(宗族)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들인 능창위(綾昌尉)가 1558년(明宗 13) 7월 30일 공보다 먼저 별세하시므로 상사(喪事)시에 나라에서 내리는 예장(禮葬)을 일절 받지 않았다.

어머님은 정경부인(貞敬夫人) 길안현주(吉安縣主)로서 세종장헌대왕(世宗莊憲大王)의 손녀요 영응대군(永膺大君) 경효공(敬孝公) 염(琰)의 따님이니 일찍이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을 통해(通解)하고 공손히 부도(婦道)를 다하였다. 배위(配位)는 정부인(貞夫人) 고성이씨(固城李氏)이니 예빈시정(禮賓寺正) 이균(李鈞)의 따님이요 문지중추부사(文知中樞府事) 이교연(李皎然)의 손녀이다.

공은 천성(天性)이 성실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공사에 항상 부지런하였고 늙어서도 기력이 강건하여 주위 사람들은 그의 장수를 기대하였건만 공은 직무에 근신하여 선공감부정(繕

工監副正)에 임명되었을 때 새벽에 나가 저녁까지 공사를 돌보며 피로를 무릅쓰고 봉사하였지만 마침내 병이 되어 자택에서 별세하시니 이때가 1562년(明宗 17) 4월 초9일이요 그해 7월 17일에 양주(楊洲) 동쪽 진관리(眞官里) 자좌(子座)에 안장되었다. 공은 의빈(儀賓-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와 통혼한 사람의 총칭-부마, 도위)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가 증직되었고 공의 유언에 따라 장손(長孫) 사근(思謹)이 공을 봉사하였으며 행장(行狀)은 묵재(默齋) 홍언필(洪彦弼-領議政)이 지었으나 분실되었고 묘지명(墓誌銘)은 인재(忍齋) 홍섬(洪暹-領議政 洪彦弼의子) 공이 지었으며 신도비명(神道碑銘)은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공이 지었다.

명(銘)

거벌(巨闕)에서 태어났지만 성품이 신실하고 부유하나 검소함은 사행(士行)이 있음 일세. 대인관계 성실하여 간격을 아니 두고 관직생활(官職生活) 근신하여 수고하고 인내했소. 자식을 먼저 잃고 눈물로 세월 보내 오랜 세월 시름 쌓여 술로써 달랬다네. 장수(長壽)를 바랐건만 병이 먼저 들다니요. 왕실(王室)과 연혼하니 죽어서도 애영(哀榮)일세. 물이 감돌고 언덕이 봉긋한 곳에 선영(先塋)이 호위하니 무덤 속에 지명(誌銘) 묻어 그의 덕(德)을 드러내리.

인천지구종회 정기총회 개최

행서(行書) 신임회장 선출



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10년 동안 종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화성(和盛) 회장이 사임하고 행서(行書) 총무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통서(通書) 이사를 신임총무로 선임하였다. 이에 앞서 화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10년 동안 인천지구 종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로 한 해 한 해 무사하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종회가 보

다 나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해야 하기에 젊고 활기차고 매사에 적극적인 능력있는 분을 후임회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서(行書)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임회장이 다져놓은 인천지구

인천지구종회(회장 具和盛, 書)는 지난 6월 30일 (목)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귀빈예식장에서 영서 고문, 예서(禮書) 강화종회 회장, 자경 주안종회 회장 등 7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



具行書 신임회장



具通書 신임총무

종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종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教原) 대종회 총무가 대종회장의 축사를 대독하였고 이어서 경과보고와 연창(然昌)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는 후 2010년도의 결산내역과 2011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결혼

구자은(具滋琿) 대종회이사 및 대전광역시종회장 : 차남 본정(本正) 군 결혼(6월 18일)

부음

구영서(具榮書 : 서울시종회 고문) : 모친(濟州 高氏) 별세 - 6월 26일/향년 99세

선조성묘순례참가기



중앙대학교 4년 구민아(具珉娥, 本)

2011년 7월 7일 능성구씨 대학생 선조성묘순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짐을 챙겨가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11번 출구로 향했다. 10시 40분쯤이 되자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잠시 어색했고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11시경 출발했다. 처음에는 서로간에 대화도 없었다. 성은 없고 한자 이름과 항렬(行列)이 쓰인 명찰을 받고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에 관한 보화 자료를 받았다. 숙소배정에서부터 능성구씨 항렬표까지 적혀있었는데 내 이름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 휴게소에 들릴 때까지 책자를 읽어보았고 항렬도 알고 역사도 알고 내 이름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게 되었다. 휴게소에 들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진에 도착하였다.

당진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온 학생들과 친해졌다. 평소 주변에 구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식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 구가라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밥을 먹으며 자기 소개도하고 항렬이 낮다고 놀리기도 하고 높다고 놀리기도 하며 친해졌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맛있는 식사 후 신암사가 있는 4, 5, 6세조 묘소에 도착했다. 이 묘소는 가끔 가족과 함께 왔던 곳이라 익숙했다. 가족과 왔을 때는 몇 가지 제사음식과 절하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절하는 방법을 배웠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와 축관, 집사를 정해서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와 행동들을 배워가며 성묘를 드렸다. 처음으로 하는 성묘에서 종헌관을 맡았다. 어색했지만 뿌듯했다. 성묘를 드린 후 신암사에 갔는데 스님께서 떡을 주셨다. 서울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였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들어갔다. 감사히 잘 먹고 고창 3세조 묘소로 출발했다. 3세조 묘소는 한눈에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경치에 감탄하며 당진에서의 성묘보다는 더 익숙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예를 올렸다. 성묘를 드리는 마지막 순서에서 "이성(利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색했지만 행사를 잘 마쳤다는 뜻이라는 설명에 동감했다. 고창을 출발해 내장산에 위치한 숙소에도 착했다. 짐을 옮겨놓고 저녁식사에서는 장어구이와 그 곳에서 나는 나물반찬들이 식욕을 자극했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보학이 있었고 학생들 자체모임으로 게임도 하고 웃고 떠들다보니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밤이 지나고 이틀째 아침이 되었다. 아침부터 거센 비가 내렸다. 식사를 마치고 짐정리 후 흰색 장화 하나씩을 받고서 능주로 출발했다. 능주에 도착했는데 2세조 묘소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경사가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 장화를 신은 것이 아주 다행이었다. 올라가서 보니 묘소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다며 학생들은 감탄했다. 보학시간에 이 곳은 호남 3대 명당 중 한 곳이라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성묘를 지내고 내려와 시조 단소에서의 성묘 때는 아헌관을 맡았다. 마지막 성묘에서 아헌관을 맡으니 더 경건해진 느낌이었고 뿌듯하기도 했다. 성묘가 끝난 후 장학증서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장학증서를 받으니 끝났다는 마음과 함께 들뜨고 기뻐다. 단체사진을 찍은 후 우리를 위해 너무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박수를 쳤다. 1박 2일 동안의 선조성묘 순례행사를 마치고 MT장소인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바로 해변가로 나갔다. 대천 해수욕장은 처음으로 간 바닷가인데 충남 보령에 위치해 있었다. 충남도총회 회장님과 임원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여 주시면서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머드로 만든 비누도 선물로 하나씩 주셨다. 설명을 들은 후 학생들은 하나 둘씩 바



닷물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다들 모여서 피구도 하고 멀리뛰기 게임도 하면서 더욱 친해졌다. 저녁시간에는 충남도총회 회장님이 우렁매운탕을 사주셨는데 어찌나 맛이 좋던지 모두가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밤에는 학생들이 모여 조개를 구워 먹으며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는 말을 하며 터미널에서 헤어졌다. 이번에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첫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으나 성묘 때는 희한하게도 비가 그치고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도 막아주어 선조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능성구씨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학생들도 신기했고 내 또래에 구가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좋았다. 처음에 아빠가 선조성묘순례행사에 참석해 보라고 했을 땐 같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막상 참석하고 보니 아빠한테 너무 감사했고 내가 능성구가라는 것도 감사했고 내 이름에 대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꼈다. 이번 선조순례행사에 아주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상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제199호) 3면 구자문 종인의 동정기사 중 『구자문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이-』는 『구자문 교육과학기술부 이사관이-』로 정정합니다.

[성금내역]

(2011. 5. 1~2011. 7. 15)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 달 회 고 문
50만원

〈장학특찬 - 대학생 선조성묘순례행사〉	
용서 성북구 돈암동	200,000
서울시종회	100,000
광주·전남종회	100,000

〈운영특찬〉

태형 인천시 강화군	50,000
------------	--------

〈연회비〉

문길(滋) 부산시 영주동	20,000
자순 과천시 중앙동	30,000
종회 중랑구 면목동	30,000

〈종보기금〉

달회 고문	500,000
인회 서천군 비인면	100,000
자석 부산시 기장군	100,000
광웅 부산시 기장군	100,000
연정 중구 광희동	100,000
부회(會) 경산시 옥산동	100,000
자형(삼용) 동작구 사당동	100,000
연관 강남구 논현동	100,000

〈종보구독료〉

자홍 부산시 용호동	20,000
------------	--------

정회 여주군 여주읍	30,000
윤서 영양군 청기면	30,000
광남 파주시 조리읍	50,000
자익 울산시 다운동	20,000
본삼 대구시 도원동	20,000
양서 계룡시 두마면	10,000
시호 창녕군 영산면	20,000
본옥 성북구 하월곡동	10,000
윤서 진주시 집현면	30,000
본홍 여주군 여주읍	10,000
남준 대구시 범어동	10,000
교찬 대구시 봉산동	20,000
자철 창원시 대방동	10,000
영호 담양군 용면	50,000
본술 서초구 서초동	10,000
영모 강동구 길동	50,000
권서 중랑구 망우동	30,000
연학 동대문구 휘경동	30,000
사회 부산시 화명동	20,000
용수 광주시 월산동	30,000
무기명	30,000
정훈 서대문구 홍제동	20,000
성희 포천시 신읍동	30,000
자근 춘천시 후평동	10,000
자용 노원구 월계동	50,000
정모 양천구 목동	50,000
종훈 마포구 도화동	20,000

필서 보은군 마로면	50,000
본철 원주시 단계동	30,000
자목 남양주시 화도읍	30,000
자항 용인시 마북동	30,000
제성 청주시 봉명동	30,000
지탁 밀양시 내이동	10,000
본찬 부산시 봉래동	10,000
정희 남양주시 화도읍	30,000
자윤 공주시 유구읍	30,000
계우 임실군 임실읍	30,000
종희 창원시 석전동	30,000
난균 동대문구 이문동	20,000
무희 대전시 송강동	20,000
본수 구로구 개봉동	30,000
달서 창녕군 창녕읍	30,000
교식 남양주시 퇴계원면	20,000
훈서 인천시 만수동	10,000
명해 동대문구 이문동	50,000
자용 안양시 평촌동	10,000
이금주	20,000
자관 전주시 동산동	10,000
선희 강남구 일원동	20,000
본옥 수원시 정자동	20,000
창모 여주시 소라면	50,000
예서 강화군 불은면	30,000
자연 안성시 삼죽면	30,000
자율 용인시 백암면	30,000
주희 용인시 백암면	30,000
우희 양평군 강상면	30,000
본기 광주시 탄벌동	30,000
본하 용인시 백암면	30,000
교선 안성시 일죽면	50,000
명희 도봉구 방학동	20,000
맹희 부산시 거제동	30,000
자항 노원구 하계동	50,000

綾城具氏宗報

날로 새로워지는 종보가 되도록.....

편집인 具光會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 중순, 원고를 마감하여 편집을 하고보니 지령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능성구씨종보가 1976년 창간 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35년의 세월을 달려 왔습니다. 지령 200호! 단순한 숫자 200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초창기부터 편집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종보를 애독하시는 종인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지령 200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종보는 창간호부터 흑백 세로쓰기로 발간되어 오다가 124호(1997.01.10.)부터 가로쓰기로 변경하였고, 면수는 4면에서 많게는 8면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155호(2004.01.25)부터는 부분적으로 컬러로 인쇄하여 2개월 간격으로 연 6회 홀수 달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종인들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종보를 만들고자 노심초사하지만 종보가 발행될 때마다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한 것이 사실인 것을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컬러로 내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고, 서류에 민감한 글을 보내시고는 꼭 게재하라는 압력성 부탁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취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때마다 지역의 소식을 챙겨 주시는 각 시도종회의 총무님들에게, 또한 그동안 귀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편집을 할 때마다 기사가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간혹 기사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아주 난감해집니다. 이때는 어쩔 수없이 필자가 글을 써서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도 하지요.

이제 지령 200호를 맞아 잔칫상이라도 차려놓고 모든 분들을 청하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정상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며, 모든 종인들이 만족해하시는 보다 성숙하고 좋은 종보를 만들기 위해서 종인들의 눈과 귀가되어 종인간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건강한 매체의 종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종보가 300호 500호 1000호... 연년세세로 이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종보대금도 납입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책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성구씨종보의 지령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더욱더 발전하여 구문의 등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고 문 : 具昌書 具環會 具章會 具達會 具滋明 具本中 具文謨
- 총 재 : 具滋暉
- 명 예 회 장 : 具旺會
- 회 장 : 具判龍(滋)
- 수석부회장 : 具滋正
- 상임부회장 : 具滋璿
- 이 사 : 具俊會 具滋信 具行書 具滋奈 具滋正 具滋寬 具完會 具禧會 具連洙(謨) 具滋英 具永本 具南書 具大瑛(書) 具峻會 具翊會 具永會(보령) 具永會(청주) 具乙會 具滋珀 具滋寬(용인) 具玉鉉(滋) 具滋厚 具利謨 具成謨 具聖謨
- 감 사 : 具章會 具先會
- 총 무 : 具教原
- 편 집 인 : 具光會

▣ 綾城具氏大宗會 ▣

능성구씨종보의 지령 2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서울특별시종회 : 회장 具俊會
- 부산광역시종회 : 회장 具滋信
- 인천지구종회 : 회장 具行書
- 대전광역시종회 : 회장 具滋奈
- 경기도종회 : 회장 具滋正
- 충북도종회 : 회장 具滋寬
- 충남도종회 : 회장 具完會
- 전북도종회 : 회장 具禧會
- 광주전남종회 : 회장 具連洙(謨)
- 대구경북종회 : 회장 具滋英
- 경남종회 : 회장 具永本

▣ 綾城具氏市·道宗會 ▣

능성구씨종보의 지령 2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判事公派宗會 : 회장 具寬會
- 侍郎公派宗會 : 회장 具平祐(會)
- 左政丞公派宗會 : 회장 具滋英
- 判安東公派宗會 : 회장 具翊會
- 都元帥公派宗會 : 회장 具滋正
- 郎將公派宗會 : 회장 具滋弘
- 監務公派宗會 : 회장 具滋元
- 叅判公派宗會 : 회장 具大瑛(書)
- 文川郡事公派宗會 : 회장 具然台

▣ 綾城具氏派宗會 ▣